

I

라벨링 제도 변경사항

1. FDA, 영양성분표 최종 개정안 확정

1) FDA, 영양성분표 최종 개정안 미 예산관리국에 제출

- 1993년 1월 6일, 식품 포장 라벨의 영양성분표 표기 의무화 법안이 시행된 이래, 2006년 트랜스 지방 표기를 위해 개정된 것을 제외하고 동일한 영양성분표가 계속 사용되었음
- 그러나 그동안 건강에 대한 소비자 요구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지속되어 왔고, 이에 따라 FDA는 식, 음료의 영양분석표에 변화를 주기위한 다양한 시도를 했으며, 2014년 3월, 10년 만에 영양분석표 개정안을 제안한 후 마침내 2016년 5월 최종 개정안을 미 예산관리국에 제출함
- 이번 최종 개정안은 첨가당 및 식이섬유 표기, 일일권장량 기준치 변경 등 그동안 논쟁이 많은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음



<그림 1> 신규 식품영양분석표 예시

출처: 아주경제

- 현실적인 1회 제공량 표기: 1회 제공량이 실제 소비자들의 섭취량을 반영하고 있지 않음
(예를 들어, 1 Pint 아이스크림 4회분-200칼로리를 2회분-400칼로리로 변경 표기)



출처: FDA

- 첨가당 표기: 천연당 이외 첨가당 성분을 표기하여 첨가당 섭취를 줄이기 위함
- 일부 제품 1회 제공량 및 전체 제공량 표기: 1회 이상 제공하는 식품이지만 한번에 먹을 수 있는 경우 전체 제공량에 맞는 칼로리를 표기해야 함. (예를 들어, 12온즈 콜라와 20온즈 콜라를 1회 제공량으로 동등하게 간주함)



출처: FDA

- 칼로리 확대 표기: 칼로리 및 1회 제공량, 일일 권장섭취량 등을 굵고 큰 볼드체로 표기하여 가독성을 높임. 소비자가 한눈에 정보를 읽을 수 있게 함
- 칼슘, 철분, 비타민 D, 칼륨 함유량 의무 표기
- 일일 권장섭취량 수정 표기: 칼슘, 식이섬유, 비타민 D가 포함된 제품의 경우 일일 권장섭취량에 몇 %를 차지하는지 그 비율을 표기해야 함
- 비타민 A, C 함유 제품 대상 자발적 표기 유도
- 섬유질 성분 표기 전 사전승인 필요
- 나트륨 기준치 2,400mg → 2,300mg으로 축소

- 이번 최종 개정안은 2015년 Dietary Guidelines Advisory Committee (식생활지침자문위원회) 의 발표, 미국인 권장 식습관 지침서, 미 의학회 및 보건영양조사를 반영함. 또한 FDA는 육류, 가금류를 제외한 모든 종류의 가공식품에 적용될 예정이며 현재 시행 시기를 논의 중이라고 발표함

2) 시사점

- 2006년 이래 동일한 영양성분표가 사용되어 왔지만 오늘날 건강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현재 영양성분표는 소비자들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많았음. 그로인해 FDA 2014년 3월, 10년 만에 영양성분표 개정안을 제안하였고, 마침내 2016년 5월 첨가당 및 식이섬유 표기, 일일권장량 기준치 변경 등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다양한 사항을 반영한 영양성분표 최종개정안을 확정함. 현재 시행시기가 잡혀있지 않은 상황이지만 한국 농식품을 생산 수출하는 업체 관계자들은 해당 사항에 대해 미리 주목하고 강화된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향후 대미 수출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요소를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2. 관련 웹사이트

<http://www.fda.gov/NewsEvents/Newsroom/PressAnnouncements/ucm387418.htm>

<http://www.foodnavigator-usa.com/Trends/Nutrition-Facts/FDA-Nutrition-Facts-panel-final-rule-submitted-to-OMB>